

13월의 세금폭탄... 직장인들 우울한 연말정산

교적이 있는 A씨는 최근 2월 월급을 받아두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처럼 올해도 100여만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했던 A씨는 올해 연말정산 결과, 오히려 60여만원을 '토해내야' 했기 때문이다. 해마다 2월 급여에서 기대했던 '13월의 보너스'가 완전 사라진 셈이다. 직장인 B씨도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속이 아프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한 결과 지난해보다 무려 150만원이나 줄어 고작 16만원을 환급받는데 그쳤다. 올해 제도가 바뀌어서 줄어든 것으로는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라 적잖이 당황했다.

2월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가운데 그동안 보너스뿐만 아니라 여겨졌던 연

환급금 줄고 추징 늘어 올해는 감소폭 더 늘 듯 정부 "원천징수 감소 때문"

말정산 환급금이 줄거나 되레 세금을 추징당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어 세금폭탄 부메랑이라는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자 1576만8083명 가운데 989만8750명이 세금 4조6681억3000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47만1590원으로 전년보다 1만원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2005년 환급액 64만9000원과 비교하면 17%나 감소하는 등 계속해서 환급액은 줄고 있다. 전체 규모로 보면 환급자 역시 전년대비 25만4000명 줄었다. 반면 이른바 세금을 토해낸 사람은 354만7690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납부세액은 40만1270원이었다. 전년보다 61만2530명 늘었고 납부세액도 평균 3만원 가량 늘었다.

이처럼 환급액이 줄고 납부세액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2012년 9월부터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떼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평균 10%씩 줄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가계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줄인 것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줄이는 가장 큰 이유"라며 "이로 인해 이달부터 월600만원 이

상의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늘어나도록 간이세액표가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환급 규모가 체감적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매달 평균 10%씩 세금을 덜 낸 만큼 단순 계산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도 평균 10%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다가오는 월급날이 꼭 반갑지만은 않은 셈이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고 주택임대료 공제를 상향, 의료비·교육비 등 1인당 소득공제액이 2500만원으로 한 정되는 등 환급혜택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에서 장애인, 70세이상 경

로우대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 인적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기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리사주연금 등 일부 특별공제 항목도 세액공제로 바뀐 전망이라 오히려 소득이 높은 근로자는 과표기준이 높아지고 환급혜택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자동계산' 코너(<http://www.nts.go.kr/cal/cal-05.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창에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액·근로소득금액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예상 환급금을 알려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조현상 효성 부사장 등기이사 선임된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3남인 조현상 효성 부사장이 등기이사 자리에 오른다.

효성은 다음 달 21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 조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조 부사장은 효성 산업재제 PG장으로, 효성 지분 9.18%를 보유하고 있다. 장남 조현준 사장 지분(9.95%)과 1%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 사장과 조 부사장의 입



지가 대등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대 주주는 조석래 회장으로 10.32% 지분을 갖고 있다.

업계에서는 조 부사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되면 형인 조 사장과 후계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농지매입비축사업비 101억원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상반기 집행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2014년 농지이용합성화와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지매입비축사업비 144억원을 확보해 사업비의 70%인 101억원을 상반기 중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도입돼 고품 또는 절병 등으로 은퇴, 이농,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고 매입한 농지는 2030세대 및 실전업농에게 5년간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근 침체된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지가격의 정상화와 동시에 매입한 농지를 꼭 필요한 농업인에

게 임대함으로써 농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매입대상이 되는 농지는 2000㎡ 이상 진흥지역 내의 농지로서 매입가격이 ㎡ 당 2만5000원 이하로 저득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다.

김형운 본부장은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전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큰 호응을 받는 사업으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농지매입비축사업 및 기타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fbo.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6억 이상 전세대출 내달부터 못 받는다

내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 전세 대출이 사실상 차단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중산층 이상으로 늘어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다. 가계부채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액 전세 대출을 막아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전세 중심의 임대구조가 바뀌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6억원 이상 고액 전세 대출에 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지속 대책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연영뉴스



기아차 봉고트럭 고객 만족 결의 지난 21일 기아자동차 광주3공장에서 열린 '2014년 봉고트럭 품질결의대회'에서 3공장 관리자 및 협력사 대표들이 "최고 품질의 봉고트럭을 생산해 고객 만족에 다가서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작년 광주 전문건설업체 실적 20% 증가

외지 수주량 크게 늘어...2009년 수준 회복

광주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지난해 실적실적이 전년보다 20% 가량 올라 2009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업체들이 외지 수주를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

2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953개 전문건설업체 중 877개사가 신고한 지난해 실적실적총액은 1조5797억원으로 전년보다 2670억원(20.4%)이 증가했다. 최근 3년 동안 내리막길을 걷던

실적이 활황기였던 2009년(1조5190억원)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이는 협회와 회원사가 공사영역 확대 및 공사물량 확보를 위해 외지에서 수주량을 증가시킨데 힘 입은 것이다. 또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지역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노력도 실적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에서는 570억7000만원을 신고한 삼지토건(주)이 업체별 실적총액 1위를 차지했고, 407억6000만

원을 신고한 ㈜대성건설산업과 373억7000만원을 신고한 ㈜가현건설산업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사원가에 물가상승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데다 품셈의 하향조정 및 회사 경영에 따른 일반 관리비 등이 상승해 수익성은 갈수록 나빠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실적신고액이 손익분기점에도 못 미치는 10억원 미만 업체(무실적업체 38개)가 전체 62%인 545개 업체에 달한 반면, 현상유지 또는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수는 전체의 38%인 332개에 불과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당첨번호	2등번호 숫자	
2 7 12 15 21 34	5	
등 위	당첨금액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778,354,344	8
2 5개 숫자+번호 일치	51,546,503	46
3 5개 숫자 일치	1,510,280	1,570
4 4개 숫자 일치	50,000	80,965
5 3개 숫자 일치	5,000	1,346,737

새얼굴 "지역중기 주식자금 조달 지원 최선"

최호근 예탁결제원 광주지원장

"지역 내 증권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과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4일자로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장에 부임하는 최호근 지원장은 지역 내 우량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증권시장을 통해 양질의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모든 실무지원과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지원장은 지역 사회공헌

활동 강화하는 한편 소외 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확대해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이 지역민과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지원장은 충남논산 출신으로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1년에 입사해 감사팀장, 창조금융추진담당 등을 역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중얼거라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 대산프리모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